

“문화강국의 핵심적인 역할 할 것”

익산시 예술문화 대제전 시상식
경상북도 대표팀 ‘최우수상’



지난 16일 익산 소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예술문화 대제전 시상식에서 경상북도 대표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익산시는 지난 16일 익산 소리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 하철경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차관, 정현을 익산시장, 조규대 익산시의장, 광역시도 대표선수단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예술문화 대제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문화부 나종민 차관은 축사를 통해 “문화부는 예술과 창작품이 제대로 인정받는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예술대전은 전국 통합 예술경연으로 예술인들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신인예술가 발굴과 육성으로 문화강국 기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한국예총 광역시도연합회가 주관하고 예술인 5,000여 명(연인원)이 참석하는 예선전을 거쳐 각 광역시도의 대표단 360여 명을 선발해 진행됐다.

이들은 각 광역시도를 대표하여 전국제전주 개최도시인 익산에서 본선 경연을 벌여 최우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개인이나 팀 단위 경연이 아니라 광역시도별 대표팀으로 치러진 최초의 예술대전으로 개최됐다.

이번 제1회 대회의 최우수상은 신명과 화합을 주제로 대북과 팽과리 등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대표팀(김천국악협회)이 수상했다. 경상북도 대표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과 부상으로 시상금(1,500만원)과 상패를 받았다.

경북 대표팀 신대원 감독은 “제1회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기쁘다.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 묵묵히 연습해준 단원들과 도 대표 선발전부터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한국예총 경상북도연합회 이병국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더 많은 지역 신인예술인이 오늘과 같은 기쁨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술대전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대전 주관단체인 한국예총은 문화예술계의 오랜 과제로 남아 있는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사전에 16개 광역시도 대표 예술단체와 전문협회로부터 150여 명의 전문가를 추천받는 심사위원 풀(Pool)제도를 운영했다.

또한 심사위원 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등 전문성 검증을 통해 본선 심사위원을 2배수로 선정하고 경연 당일 현장추첨을 통해 최종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심사위원 추천제를 최초로 시행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임동창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심사에 참여해왔지만 이번처럼 심사위원 풀(Pool)제도와 현장추첨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시상식은 시니어모델 50인으로 구성된 전통궁중복식쇼와 한국예총 화예(花藝)명인을 중심으로 한 화예특별전시회 등 다양한 축하 공연과 전시회로 구성되어 익산시민 등 지역민들의 함께하는 축제로 개최됐다. /익산=우병희 기자



임실군이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임실상성문화마을을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주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일상이 문화예술로... 어르신이 행복한 임실

마을문화학교 '생활의 지혜' 큰 인기

임실군이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군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임실상성문화마을을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주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일 마을문화학교 '생활의 지혜' 입학식을 시작을 12월까지 색다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상성마을추진단이 공간재생&공동체 문화기획 그룹인 일상문화연구소 스페이스 모와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 푸른돌고래와 협력하여 이뤄지고 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마을문화학교 '생활의 지혜'는 지역 예술가 및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되며 참여 어르신들의 연륜을 고려한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이달에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활력을 되찾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상성마을과 함께 깃들어진 아름다운 추억을 한 장의 엽서로 남기는 '나만의 엽서 자랑' (강사 정혜인), △살면서 삶의 흔적으로 거칠어진 손을 예쁘게 꾸미는 네일아트 '나도 할 수 있는 거!?' (강사 신 록)을 진행한다.

이어 11월에는 시대적 변화와 공감을 꾀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뒷밭을 가꾸며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의 맛이 담긴 새참 비법 과정을 공유하고 기록하는 '천 가누설! 나만의 새참 비법' (강사 서민호, 이은숙)과 △입은 듯 안 입은 편안하며 멋까지 겸비한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몸매 디자인' (강사 우현주)을 진행한다. 12월에는 프로그램 통해 얻은 성과들을 여러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시회를 개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김옥분 어르신은 “나만의 엽서만들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시절 그림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던 기억이 났다”며 “눈 오는 날 대야를 짊어지고 언덕을 걸어가는 사람을 그렸는데, 큰 상을 받게 돼 참 기뻐했다”고 회상했다.

아이를 키우느라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는 김씨 어르신은 “나이 들고 다시 그림을 그리게 돼서 정말 행복하다”며 “우리만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임실상성문화마을추진단 최성일 대표는 “어르신들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고 자존감을 높여 드리고자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추억을 회상하고 공유함으로써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지역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며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행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불교 시민단체 “유치원 횡령 지홍스님, 포교원장 퇴진해야”

유치원 직원 등재해 1억8천만원 수령 혐의... “퇴진하고 엄중한 사법적 처벌 받아야”

24개 불교 시민단체로 구성된 불교개혁운동이 유치원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의 퇴진 및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불교개혁운동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홍스님은 2016년 2월부터 종교 규정상 다른 상근직을 겸임할 수 없는 포교원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회주(법회를 주관하는 사찰의 가장 큰 스님)로 있던 불광사 부설 유치원 직원으로 자신을 등재시켰다”며

“그러면서 1억3000만원의 유치원 교비를 월급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홍스님은 지난 3월16일 불광사 소속 직원에게 ‘내 생각도 안 하고 자나’라는 등 사적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홍스님의 포교원장 직위 유지는 종교단체 재정투명화와 도덕성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 여망에 반하는 것으로 퇴진해야 마땅하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 감사가 소홀한 틈을 타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불광사 부설 유치원 돈을 호주머니로 넣은 것은 엄중히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지홍스님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송과경찰서는 지홍스님과 불광사 부속 유치원 원장 A씨를 지난 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이 유치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매달 수백만원씩 약 1억8000만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불교개혁운동이 주장하는 액수보다 약 5000만원 더 많다.

불광사 신도들로 구성된 불광사정성화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에 “지홍스님이 급여 명목으로 유치원 공금을 차명 계좌로 빼돌렸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지홍스님은 횡령 파문이 확산되자 회주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조계종 포교원장직은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조계종 신도를 관리하는 포교원장은 조계종 내에서 서열이 두번째로 높다.

/뉴시스

제3회 전주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음악 풍경

10월 27일(토) 오후 6시
전주 한옥마을 특설무대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문의: 사)전북문화진흥원
(☎ 063-288-9700)